

보도시점

2025.9.9.(화) 17:00
(2025.9.10.(수) 조간)

배포

2025.9.9.(화) 09:00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식 개최

-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 이튿날, 5개 정예팀 대표들과 착수식 개최
- “한국형 인공지능(K-AI)” 명칭 공식 부여로 정예팀들의 국제 공신력 강화 뒷받침
-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에 담대한 도전 의지 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정예팀 선정(‘25.8.4) 이후 인공지능 개발 등을 본격 지원 중인 가운데, 9월 9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에스케이텔레콤 유영상 대표, 엔씨에이아이 이연수 대표,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우형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세계적으로 파급력있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인공지능 모형(AI 모형) 개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 ‘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더 큰 도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5개 정예팀 대표들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주권 확보·확립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자립과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화답하였다.

먼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정예팀으로서, ‘인공지능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정예팀 내 유일한 창업 초기 기업 연합체(스타트업 컨소시엄)로서, 그동안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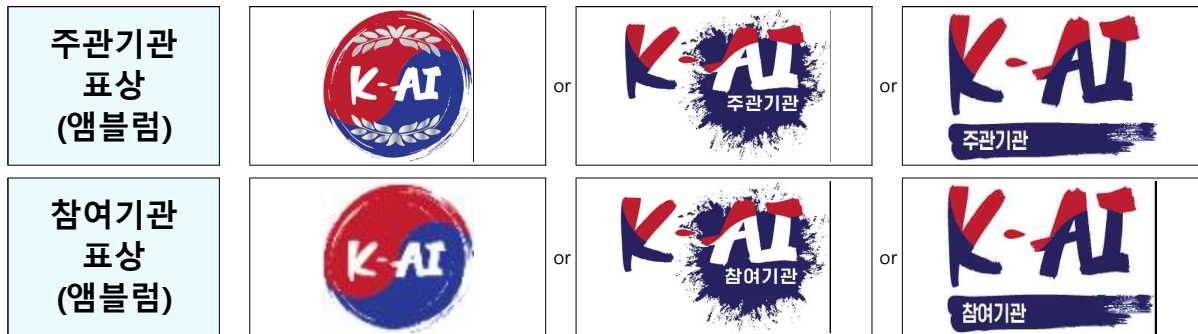
아울러 엔씨에이아이 이연수 대표는 “산업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우형 원장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날 착수식에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표상(엠블럼) 수여도 진행되었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수여받았으며,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한국형 인공지능(K-AI)” 표상(엠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의 “한국형 인공지능(K-AI)” 표상(엠블럼) 활용도 뒷받침함으로써, 실력있는 다수 중소기업·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등의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도 다각도로 중점을 두었다.

< 한국형 인공 지능 표상(K-AI 엠블럼) >

- ▶ 기업 선호에 따라 기업명 주변에 **한국형 인공 지능 표상(K-AI 엠블럼)** **자율 배치 가능**
- ▶ 다양한 한국형 인공 지능 표상(K-AI 엠블럼) 중 **기업 선호에 따라 자율 사용 가능**
- ▶ '26년부터는 단계평가로 압축된 팀 대상 한국형 인공 지능 표상(K-AI 엠블럼) **사용권 부여**



※ 5개 정예팀 의견 수렴 및 보완 등을 거쳐, 상기 한국형 인공 지능 표상(K-AI 엠블럼)을 확정하였음

또한 이날 착수식에서 참석자들은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에서의 ①SOTA(State Of The Art) 급 독자 인공 지능 모형(AI 모델) 개발 도전 계획, ②단계평가 추진방안, ③공공·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 인공 지능 대전환(AX) 혁신 지원방안, ④‘모두의 인공 지능(AI)’ 생태계 기여 방안, ⑤국제적 파급력 확산 방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잠정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팀 → 4개팀 경쟁형 압축)는 ①국민·전문가 평가, ②본받기(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인공 지능 안전성 연계), ③파생 인공 지능 모형(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6.21 기발표), 향후 5개 정예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 등을 마련하되, 단계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12월말 대국민 경연(컨테스트, Contest)도 마련될 예정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독자 인공 지능 모형(모델) 개발과 대한민국의 인공 지능 강국 도약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동 보도자료는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기업, 연구자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기철 (044-202-6360)
		담당자	사무관	이현우 (044-202-636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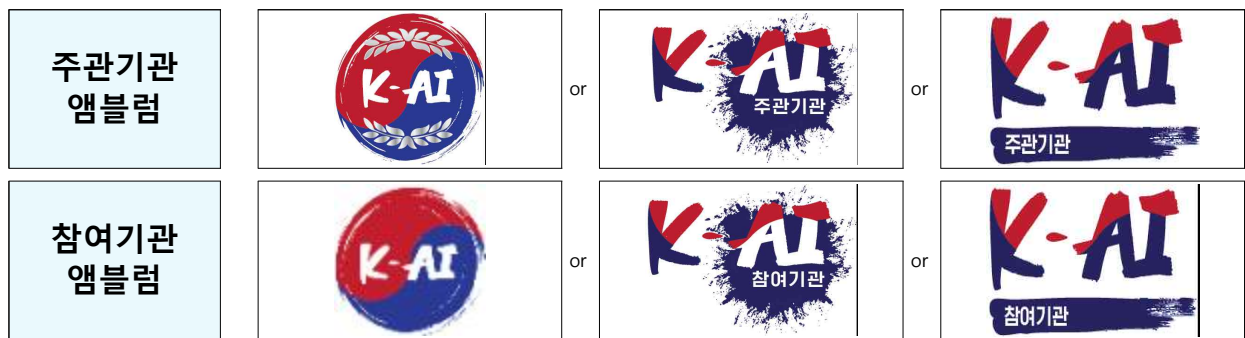


참고

K-AI 엠블럼 및 정예팀 활용예시

□ K-AI 엠블럼

- ① 기업 선호에 따라 기업명 주변에 K-AI 엠블럼 자율 배치 가능
- ② 다양한 K-AI 엠블럼 중 기업 선호에 따라 자율 사용 가능
- ③ `26년부터는 단계평가로 압축된 팀 대상 K-AI 엠블럼 사용권 부여



※ 5개 정예팀 의견 수렴 및 보완 등을 거쳐, 상기 K-AI 엠블럼을 확정하였음

□ 정예팀 활용예시

※ 기업 선호에 따라 자율 배치·활용 가능

